

고흥타임즈

2025년 4월 25일 | 금요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고흥군·홍양영농조합법인과 3자간 업무협약 체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성공적 업무 추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4월 10일 고흥군·홍양영농조합법인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한국농어촌공사 박승수 고흥지사장, 고흥군 공영민 군수, 홍양영농조합법인 김종율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은 고흥 관내 20ha 규모의 스마트팜 창업 단지의 원활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맺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 고흥군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 홍양영농조합법인은 스마트팜 운영을 통한 청년농 육성 및 지원 등 각 기관별 구체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지원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

휴부지를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매각하여 농업법인·청년농 등의 영농 규모화 및 첨단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지사는 2024년부터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22번지 일원에 240억원을 투입해 20ha 규모의 스마트팜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박승수 고흥지사장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첨단농업시설 지원요구에 발맞추어 고흥 관내 농업법인과 청년농에게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지원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오늘 협약이 고흥을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통해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